

1등우 음모교육 진모음

95%를 도태시키는 음모 교육

대학 교수로 지내다 보니 주위 친지들로부터 대학 입시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러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려운 문제를 물어 오는 까닭이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시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몇 년 전, 건물 준공 기념 행사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다. 그 자리를 빌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음모의 교육 제도라고 단언했다. 음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치를 때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온갖 노력을 다하게 하고, 모두 탈진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학생의 95%를 도태시키려는 파괴적인 제도인 것이다.

음모가 있지 않는 한 온갖 고생을 다 시켜 놓고 95%, 즉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왜 95%를 도태시키려는 제도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200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대략 60만 명이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은 신입생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하여 3천여 명의 신입생만 받기로 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류 대학이라고 지칭되는 대학이 전국에 10개쯤 된다고 가정하면, 졸업생과 재수생을 합해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입시 결과에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졸업생 가운데 3만 명 미만의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나머지 57만 명의 학생들은 주위로부터 좌절을 맛본 학생으로 취급될 것이다. 대다수 학생의 기를 죽이려는 음모의 교육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모래 주머니를 지고 뛰는 교육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일과표를 구해서 본 적이 있다. 오전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한다. 그때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일과를 끝내면 4시 15분까지 집에 돌아온다. 그리고 4시 30분부터 10시까지 컴퓨터 학원, 한문 학원, 보습 학원으로 이어진다. 학원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11시까지 영어와 수학을 공부

한다. 11시부터 잠시 쉬고, 그날 배운 것을 정리하거나 숙제를 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휴식 없는 긴장의 연속이다.

새로 부임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우리 선수들의 진을 빼놓고 '거의 죽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선수들인 만큼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임 감독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훈련을 시켰더니 국가 대표 선수들이 초주검이 되었다는 것이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총사령관이었던 히딩크 감독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인물로 유명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오전 1시간 30분, 오후 1시간 30분씩 강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우리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가? 날마다 월드컵 국가 대표 축구 선수단의 6배에 이르는 강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한 교도소는 강력범 죄수들의 잦은 탈옥 시도를 막기 위해 교도소 주변에 16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후 근무 성적이 좋은 교도관들을 선발하여, 감시 카메라를 보다가 수상한 장면이 나오면 즉시 경보를 울리는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모의 훈련을 통한 교도관의 감시 효과는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이에 교도소는 인근 대학의 인간공학 실험실에 의뢰하여, 감시 카

메라 훈련을 받는 교도관의 업무 능력과 감시 효율을 측정하기로 했다.

교도소와 비슷한 형태의 장치를 갖춘 실험실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결과, 선발된 교도관들의 집중력은 근무한 지 2시간을 넘기게 되면 초기 집중력의 40%로 급격히 떨어졌다. 2시간이 지나면 경보를 울려야 할 장면의 60%를 놓치는 셈이다.

국경 분쟁이 잦은 곳에 주둔했던 외국의 한 군부대에서 경계선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물체를 식별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초소 경비병의 경계 효율을 연구한 적이 있다. 모의 실험을 통해 측정한 결과, 경계 근무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면 보고 대상의 50% 이상을 놓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이 부대의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은 4시간 근무-4시간 휴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 연구 이후 2시간 근무-2시간 휴식으로 단축 운영되고 있다.

은행, 백화점, 편의점의 벽 모서리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 건물 관리실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놓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들도 2시간 이상 모니터를 보고 있노라면 의심쩍은 행동을 발견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드컵 국가 대표팀, 교도관, 국경 초소병, 감시 카메라 담당자 등의 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으로나 인간의 업무 효율은 2시간만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제 다시 중학교 학생의 시간표를 인간공학적 시각으로 분석해 보자. 우리 중학생은 학교 일과 중 오전에 이미 탈진했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본래 능력의 40%의 효율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중학생 본인도 아무리 정신을 차려 열심히 공부하려 해도 잘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은 2시간씩 훈련받았더니 죽을 지경이라고 기자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고, 기자들은 동정적인 시각으로 이들의 고된 훈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도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하소연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경 초소병처럼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쉴 수 있겠는가? 오전에 2시간 수업을 했더니 효율이 떨어져서 점심 시간까지 좀 쉬어야겠다고 교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장 문제 학생으로 분류되어 학부형에게 연락이 갈 것이다.

어머니에게 오전 수업을 받고 났더니 지쳐서 공부할 생각이 없 어지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학원 등록을 하려는 어머니에게 2시간 수업, 2시간 휴식으로 시간표를 짜 달라고 말하면 어머니의 눈길이 고울 것인가? 과외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고 혼쭐이 날 것이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밤 10시쯤 돌아오는 조카를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 삼촌에게 조카는 “10시만 되면 졸려서 죽을 것 같다”고 사정한다. 그러나 보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카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없다. 국가 대표 축구 선수, 교도관, 초소 경비병, 감시 카메라 담당자들은 일과 중에도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중학생들은 집에 돌아가면 더욱 삼엄한 밀착 감시 속에서 한층 강화된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

물리학에서 가르치는 ‘일(Work)의 공식’이 있다. 일은 어느 물체에 작용한 힘(force)과 그 힘으로 인해 물체가 움직인 거리(distance)의 곱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건물의 벽과 같은 물체는 오랫동안 밀고 있어도 꿈쩍도 안 할 것이다. 따라서 죽을힘을 다해 일했으나 전혀 일을 안 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학업에 쏟는 노력과 그로부터 얻는 보람을 비교해 보면 생각나는 광경이 있다.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지고 하염없이 운동장을 뛰라고 강요받는 것이다. 힘들어서 천천히 뛰겠다고 하면 문제 학생으로 분류되고, 뛰다가 지쳐서 넘어지면 온 가족이 달려들어 기어코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한마디 듣는다. “또 넘어지면 우리 집은 끝장이다.” 탈진

해 쓰러지고, 억지로 일으키고, 또 뛰는 일이 되풀이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자율 학습 중인 교사, 표류 중인 아이들

TV를 보노라면 두 가지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장면을 접하게 된다. 하나는 공부에 지친 고교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교육 현장 고발 프로그램이다. 다른 하나는 노래를 끝내고 무대를 떠나려는 가수에게 발을 구르며 앙코르를 외치는 같은 또래 학생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쇼 프로그램이다.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동업자 입장에서 교사에게 동정이 간다. 장면이 바뀌어 학부형 인터뷰가 이어진다. 마이크 앞의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면 수업 시간에 좀 자두라”고 한다. 학교에 비해 학원에 투자한 돈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 학부형은 학교 수업 시간보다 족집게 과외로 이름난 학원 강사의 강의

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학원 강사의 입장도 있을 것이다. 학원 시간만큼은 잠을 자면 안 된다고 강조할 것이다. 수강생의 성적을 올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달 성적을 올려 주어야 다음 달에 수강하는 학생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수강생 숫자와 수입이 곧장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학생들에게 친근한 농담을 건네고, 앞줄에 앉아 있는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수업 분위기가 늘어지면 최신 유행곡을 열창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낸 넌센스 퀴즈도 적절히 풀어 놓을 것이다.

학생들의 행동도 이해가 간다. 학원 수업 중에는 잠자는 학생이 없는데 학교 수업 중에는 자는 학생이 있지 않은가? 교사들의 동정심도 한몫할 것이다. 교사 또한 대학 입시를 위한 강행군을 직접 겪었던 선배이기 때문이다.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을 것이다. 자는 학생을 깨워 주의를 주다가 학부모로부터 봉변당했던 동료 교사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부형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면 중재자로 나서는 교장, 교감은 누구의 편을 드는가? 먼저 교사, 학생, 학부형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잘잘못을 가려 그 내용을 기초로 중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례를 보면, 설사 일선 교사의 처사가 옳다고 하더라도 학교 책임자가 교사를 감싸 주는 경우는 흔

치 않다. 덕망 높은 교장은 학부형에게 해명한 후 교사를 위로할 것이다. 무심한 교장은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고 교사를 나무랄 것이다. 교육감, 교육위원 등의 일선 교육 행정가들은 학부형들과 마찰을 빚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교사는 자율 학습을 시킬 것이다. 자율 학습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 교사들도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학생부 기록, 내신 자료 준비 등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잡무도 꽤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교사로서의 열정이 사라질 것이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교사들은 학원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학원 강사로 변신할 것이다. 좌절감을 자주 느꼈던 교사들은 점차 강경한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TV에서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에 나온 교사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의 표정과 말투가 예상 외로 강경했다. 교사 초기 시절부터 저렇게 강경한 성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좌절하는 교사도 있고, 자리를 옮기는 교사도 있고, 투쟁을 선언하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 자율 학습 관리 중이다.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유학 시절, 작업생리학과 집단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이런 과목들은 인간의 행태를 유추하기 위해 생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자주 한다. 이때 단위 면적당 생쥐들의 숫자를 점차 늘리면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는 목줄을 짧게 묶으면 성격이 예민해진다. 그러다 줄이 풀리면 방향을 못 잡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은 국가 대표 선수들도 감당 못 할 고된 일과에 묶여 지낸다. 좁은 공간에 모아 놓고 가르치고 꼼짝도 못 하게 한다. 게다가 학부모, 교사, 학원 강사가 번갈아 가며 몰아붙인다. 생쥐들의 경우라면 스트레스가 급격히 쌓여 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딱 짜인 일과표는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는다. 개의 목줄이 짧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된 과정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중간 휴게소도 없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학생들은 정서 불안 증세와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짧게 묶여 있던 목줄이 끊어지면 통제가 어려운 일탈, 파괴적인 충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난다.

생쥐들은 공격 성향이 높아지면 같은 무리 중에서 약자를 골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주변에서 약자라고 생각되는 동료를 지목하여 이유 없이 괴롭힌다. 온순한 어린이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온 학생의 문제가 노출되면 그제야 교육 행정가, 교사, 학부모, 지식인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내놓는다.

먼저 교육 행정가가 사과한다. “여러 차례 시정할 것을 지시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겠다.” 교사는 지친 모습이다. “모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파악할 수는 없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기도 하고,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터뷰 끝 부분에 교육학자가 한탄한다. “이런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지식인이 한마디로 반성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저런 일을 보고 들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 간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런 사안에 점차 익숙해진다.

스트레스는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평소 암전했던 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느닷없이 투신 자살을 감행한다. 가족 관계가 원만했던 학생이 갑자기 기출한다. 친구가 기출하면 별 생각 없이 동참한다.

학년이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양해지며, 집단 생

활, 용돈벌이, 음주와 환각제 복용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성격이 온순한 학생들은 게임, 인터넷, 채팅, 명품 수집에 취미를 붙인다. 외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은 팬클럽에 가입한다. 연예계, 스포츠계의 스타를 보기 위해 길거리에서 며칠 밤을 새운다. 공연 티켓을 사고자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용돈을 번다. 좋아하는 우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질책을 받아 오던 아이들은 공격조를 결성한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용돈을 빼앗는다. 추궁을 받으면 빼앗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 잠시 꾸어 쓴 것이었다고 해명한다. 물건을 빼앗은 것은 아니고, 잠시 쓰다가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가해자 학생의 어머니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졌다고 항의한다. 피해자 학생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의사가 인터뷰에 응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증이 예상된다.” “완치되지 않으면 사회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늘 그렇듯 이런 프로그램 끝 부분에서는 사회 저명 인사가 시청자를 안심시킨다. “아직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량한 편이다.”

학부모는 모든 것이 불안하다

입시생을 둔 학부모에게는 일상 생활이 모두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부모도 생활을 위기 체제로 바꾼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가야 할 곳,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를 모두 미룬다. 모든 사회 생활로부터 격리된 생활로 접어든다. 모든 것을 희생하되, 입시와 관련된 크고 작은 정보는 모두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따른다. 왜 이토록 끌려다니는가? 자식 일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참고 지낸다. 내 자식의 장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긴장이 연속되면 협심증 증세가 나타난다. 일상사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지고, 별일도 아닌데 놀라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한다. 자녀를 보고 있노라면 불안하다. TV를 보고 있는 것도 불안하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 쉬고 있는 자녀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 참아야 한다고 몇 번씩이나 되뇌다가 기어코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

자녀가 자전거를 갖고 나가면 뉴스에서 본 고수 부지 충돌 사고가 떠오르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들고 나가면 옆집 아이의 골절을 연상한다. 학원에 간 첫째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교통 사고가 연상되고, 큰집에 간 둘째는 조카들과 다투지 않을까 염려된다. 눈에 보이는 것도 불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불안하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본마음과 달리 생색을 내게 된다. “너한테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너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까지 하고도 실패하면 같이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녀들은 부모의 생색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된다. 대책은 무엇인가? 부모와 대화를 줄이고, 부모의 안색이 안 좋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 전개 되면 서둘러 책을 펴 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슬그머니 학원으로 나간다.

학부모의 스트레스 요인은 또 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인 체면이

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겠는데, 자식 교육 때문에 체면이 깎이는 일만은 참을 수 없다. 집안 어른들은 공부 잘 하는 손주만 싸고 돈다. 친척들도 유난히 우리 아이 거취에 관심이 많지 않은가? 만일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봐란듯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도 낯이 안 서고, 동네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동창들에게도 면목이 서지 않는다. 모든 게 스트레스인 것이다.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입시생을 둔 학부모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마치 격전지로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 전투 부대 장병들과 같다. 학원 진단, 입학 정보지, 수능 참고 서적, 내년도 출제 경향, 논술 예상 문제, 면접 요령, 달라진 입시 제도 등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익혀야 한다. 전쟁터에서 뜻밖의 상황 전개에 항상 대비해야 하듯이 입시 전쟁에서도 모든 여건 변화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입시 전략이 나오면 완전히 터득해야 마음이 놓인다. 입시 제도가 바뀔 것 같다는 기사가 날 때마다, 입시 제도를 논하는 심야 토론이 방송될 때마다, 새로 생긴 학원 광고 전단이 날아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세세한 일 한 가지라도

자칫 소홀히 하였다가 큰 낭패를 볼까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육비도 버거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돈이 들 것인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돈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그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투자 대 효과 분석도 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자식을 불모로 잡고 있는데 투자 효과를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기가 죽을 것 아닌가?

가끔 이 일 저 일 생각해 보면 지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곧 그 생각을 지운다. 다른 집 자녀에 비해 뒤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 자식만은 잘 되어야 한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온갖 것을 다 희생하다 보니 학부모의 도덕성과 윤리관도 영향을 받는다.

내신 평가, 학생부, 시상 경력, 사회 봉사 활동 실적은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자식이 관련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어차피 전투 아닌가? 나 혼자 지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안 하더라도 남들이 한다면 내

자식만 손해 아닌가? 내 자존심 때문에 자식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옛말에도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매년 새롭게 진입하는 입시생의 부모들은 과거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첫 입시 전투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린다. 그러나 마땅히 물어 볼 주변 사람도 없고, 묻기도 창피하다. 실패한 사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결국 선배 학부모들이 겪었던 참패의 원인이 해마다 반복된다.

선배 학부모들은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지혜가 있을 것이다. 새로 투입된 학부모에게 알려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이었던 학습 방법,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지혜, 자녀의 탈선 징후, 시험 전 준비 사항 등은 후배 학부모들이 알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주변 학원의 평가, 좋은 참고서 선별법, 기억해 둘 만한 조언 내용 등도 귀뜸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싶어진다. '이제 내 문제는 아니다.' 학부모들의 이기심이 조금만 덜했어도 고쳐질 수 있는 시행착오가 해마다 반복된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거론해 주기만 했어도 방지될 수 있었던 구조적인 비리가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학부모도 교육 파행의 윤리적 공범이다.

선발된 5%도 큰 희망은 없다

역사에 나타난 전 세계의 걸출한 위인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놓더라도 우리 입시생들처럼 몰아붙인다면 대부분 도태될 것이다. 잠도 재우지 않고,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으며,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을 이것 저것 시도해 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양한 능력, 남다른 적성, 뛰어난 자질은 무시한 채 오직 책과 참고서에 나와 있는 온갖 사소한 내용들을 얼마나 철저히 암기하고 있는가로 모든 것을 판정한다.

위대한 업적으로 인류 발달에 기여한 위인들의 성향을 보면 예외 없이 어린 시절부터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감수성은 적정한 연령과 단계를 따라 발달되며, 각 단계의 연결 고리가 끊

어지면 다음 단계의 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감수성의 발달은 시기가 중요하며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보완될 수 없다. 인격 형성에 중요한 감각과 취미, 감성과 취향의 발달도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 자녀들은 때맞추어 좋은 감성 교육을 받고 있는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연주가의 연주 실황 중계가 있다면, 잠시 손을 놓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감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출전하는 경기가 있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그 경기를 보게 하는 것이 자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여러 부분의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방영된다면, TV 강좌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이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시야가 넓어지고, 문화적 감각이 같고 닳이며, 장래의 비전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가 가까운 곳에서 열린다면 수업을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을 관람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의 적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먼 훗날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킨다면, 시기를 놓쳐 치료가 불가능한 자녀들의 감성 장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 가서 하면 될 것 같은가?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격전을 거치며 쌓였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털며 자유를 만끽한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규제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예기치 못한 타성이 붙는다. 학부모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챙겨 주다 보니 본인이 할 일을 찾지 못한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늘어나며 대학 생활에서 뒤떨어진다.

갑자기 마음을 잡을 계기도 없고 해서, 이쪽 저쪽 관여했던 일을 계속 쫓아다닌다. 한두 학기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 학점이 엉망이 된다. 고교 수업을 빼다박아 놓은 듯한 교양 강의를 듣다 보니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잃는다. 전공 분야 설명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핏 들었고 말았으나 특별히 궁금한 사항도 없다. 전공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

입시생을 대학에 보낸 학부모들은 성취감과 함께 허탈감에 시달린다. 본인이 그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도 생긴다. 동시에 신입생이 된 자녀에 관한 관심도 급격히 사라진다.

30km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한 마라톤 코치

자녀의 대학 입학은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30km 지점에 진입한 것과 같다. 학부모는 마라톤 코치와 같다. 그런데 선수를 감독하고 격려하며 집요하게 레이스를 이끌어 주던 마라톤 코치가

30km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결승점까지의 레이스 운영을 선수 혼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늘 코치와 함께 뛰면서 훈련을 받아 온 이 선수는 레이스 운영이 미숙하다. 마라톤에서 우승하려면 37~38km 지점쯤부터 선두 그룹으로 나서야 하며, 40km 지점을 전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서 코치가 갑자기 경주를 포기한 것이다.

학기가 끝나면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적어 낸 주소지로 성적표를 우송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적어 낸 주소가 가관이다. 시, 도의 이름만 적고 번지수를 적지 않는다. 시, 도 이름은 없이 번지수만 적어 내는 경우도 있다. 선택된 5%들인데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고, 혹시 집으로 발송되는 성적표가 달갑지 않았던 것 아닌가? 반송되어 학과로 돌아오는 성적표는 많은데 성적을 물어 오는 학부모형은 드물다.

학사 경고가 반복되어 제적 위기에 처한 학생의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왜 이제서야 알려 주느냐고 항의한다.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들어온 대학인데 제적을 시키느냐며 소송을 들먹인다. 젊은이의 앞길을 망치려는 교수가 제대로 된 인간이냐며 훈계한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를 치열하게 뛰던 마라톤 선수는 그 후 소식이 없다. 선발된

5%도 학부모의 꾸준한 관심이 없으면 큰 희망이 없는 법이다.

교수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입시 관문을 통과한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 주변으로부터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학생들이다. 내 세우지는 않지만 본인들도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들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입학 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대학의 교양 과정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 그런대로 공부 안 하고도 고교 실력으로 성적이 유지되는 기간이다.

교양 과정을 소홀히 지낸 학생들은 3,4학년이 되어 다시 회의를 빠진다. 학업에 소홀했던 교양 과정이 전공 과목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공 과목이 부담스러워지면서 점차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입생들은 어떻게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희망 학과를 정하고 목표를 세워 공부한 학생들은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망 학과, 교사와 학원이 분석한 합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과 선택이 이루어졌

을 것이다. 예상보다 높은 수능 점수를 받고 보니, 수능 점수가 너무 아까워 '상향 조정' 하여 들어온 학생들도 있다.

나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온 선발된 5%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자연대, 경영대, 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들의 점수는 입학 당시 받았던 점수에 비해 약 30~35점씩 떨어졌다. 수능 1등급에서 대략 수능 3등급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들이 받은 점수로는 서울의 하위권 대학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시험을 치고 난 학생들이 소감을 말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진다.” “단순 암기형 문제는 정말 필요가 없다.” “우주 행성의 특징을 맞히는 문제는 정말로 쓸데없는 문제이다.” “풀면 풀수록 그 과목에 회의가 든다.”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인데도 많은 문제를 틀렸다.” “수능을 본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사회 탐구, 과학 탐구는 거의 생각나지 않았다.”

99%의 관문을 통과했던 학생들이 짧은 기간이 지난 후 80%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점수를 알려 주자 모두 놀라는 기색이다. “다시 치면 못 들어올 것 같으니 마음잡고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시험을 치기 전에는 전공 과목에 회의를 느껴 유망 학과로 다시 시험을 치려던 학생의 말이었다.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때가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많이 가르쳐 주려는 것을 달가워하지도 않는다. 수업 중 흥이 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학생들로부터 사인이 들어온다. 서로 눈길을 교환한다. ‘또 시작이다.’

방금 가르친 이론을 의심하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실험해 보자고 하면 거의 모든 학생이 늑대 울음소리를 낸다. 강의 내용 중 빠트린 부분이 있어 보충 수업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괜찮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한다.

좀 어려운 수식 문제가 있어 누가 대표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해 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채 수업이 끝났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연구실로 찾아와 한번 풀어 보겠다고 했다. “왜 교실에서 말하지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재수 없다고 놀린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겪을 때면 나도 이 생활을 접고 싶은 생각이 든다. 가끔 대충 가르치자는 생각도 든다. ‘저렇게 배우기 싫어하는데 너무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돈 없는 정부, 가난한 대학

교육 파행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정부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잘사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국가 예산이 남아도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문제인 것이다.

한 가정의 예를 보더라도 생활비가 남아도는 집은 드물 것이다. 만일 호의호식하고, 대·소 행사, 손님 접대,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는 가정에서 교육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 부모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결국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든 지출을 뒤로 미루며 자식 교육에 몰두하는 것이다. 정

부는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사교육 열풍에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은 아닌가?

대학도 돈이 없다

나는 1991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서울 공대 백서》(‘공학 교육은 발전하고 있는가?’)를 발표하여 한동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백서는 “공학 교육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은 큰 희망이 없으며 국가는 5년, 10년 안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즘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위기를 느끼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과대학 예산을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가게 수입의 86%를 식구들 식비에 쓰는, 즉 앵겔 계수가 86%인 셈이다. 식비를 뺀 나머지 14%로 수도·전기세, 난방비와 교통비, 신문 구독료, TV 시청료를 내고 나면 얼마나 남겠는가? 남은 돈으로 자녀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가르치겠는가?

공대 살림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14%의 예산으로 크고 작은 실험실의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전등을 고쳐 달고 난방비를 내고

나면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교육으로 국가 장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실험실습비 지출 내역을 보면 위기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천만원 주고 산 실험 설비를 1년간 유지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9만 8천원이었다. 만일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주고 9만 8천원을 주면서 1년간 잘 운영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동차를 차고에 집어넣고 전혀 쓰지 않아도 모자랄 판이다.

공학 교육에 사용되는 실험 장비는 자동차 학원으로 치면 면허 취득을 원하는 학원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데 쓰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운전 교습소의 자동차 운영에 배정된 1년 예산이 9만 8천원이라면 그 학원을 다닌 학원생들이 면허를 딸 수 있겠는가? 온갖 특혜를 몰아서 누리는 명문대라고 사방에서 눈총을 받는 대학의 형편이 이러하다. 서울대를 관악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한 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가?

낙전으로 교육한다

'도서 벽지에 과학 기자재 보내기 운동'이라는 심야 모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 정부가 공중 전화에서 모은 낙전(落錢)으로 도서 벽지의 초등학교에 과학 기자재를 보내기 위해 벌이는 모금

캠페인 프로그램이었다. 낙전이란 무엇인가? 고장난 공중 전화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고 떼어먹은 동전을 모아 생긴 돈이다.

정부는 이토록 낙전까지 써 가며 과학 교육에 힘쓰고 있다. 그러니 시청자들도 이 취지에 동참하여 도서 벽지의 과학 교육에 일조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에는 일반 시청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패널 몇 사람이 출연했다. 정부 관리, 기업체 사장, 언론인, 교수 등이었다.

"도서 벽지에 과학 기자재를 보내는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중 전화의 낙전까지 모아서 과학 교육에 힘쓰고 있다", "시청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프로그램 중간에 고위층 인사가 촌지를 보내 주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관련 부처 장관들도 전화를 걸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방송이 진행됨에 따라 모금액 집계를 알리는 전광판 숫자도 바쁘게 움직였고, 전화 접수 모금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시청자들이 감동한 것이다.

내가 발언할 순서가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참고 있던 말을 뱉어 내고야 말았다. "시청자들은 이런 모금에 너무 쉽게 감동받으면 안 된다. 도서 벽지 어린이의 과학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공중 전화가 집어먹은 동전이나 모아서 도서 벽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려 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없다고 본다. 낙전은 잔돈

을 거슬러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처사 아닌가? 도서 벽지 어린이들도 재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발언 이후, 모금 액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시청자들의 전화도 부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방송 직후 나는 함께 출연했던 패널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들었다. 성격 장애자라는 것이다.

정부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요즘 우리가 마주치는 어린 학생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의 입장에서, 선배의 입장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 설 때까지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국민의 도리 아닌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우선 내 자식만이라도 잘 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평준화의 종착역

1945년 전국의 대학 수는 19개였다. 20년이 지난 1965년에 그 수는 약 200개로 늘어났고, 2000년에는 1,000개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60년간 대학의 숫자가 50배로 늘어난 것이다.

대학의 숫자가 50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인허가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재단의 비리도 있고, 입학 부정도 있고,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모든 대학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학의 전통, 시설 수준, 교수 인력 확보 수준, 교과 내용, 교육 수준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

는 해방 이후 대략 3단계를 거쳐 관리 제도의 개혁을 시도했다.

그 첫 단계는 1953년부터 1980년까지이다. 초기에는 대학이 입시의 자율권을 행사했다. 그 후 1969년부터 예비고사 제도가 생겨 점차 국가와 대학이 학생을 공동 선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1년부터 1993년까지이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학 입시 제도를 운영했다. 대입 예비고사에 고교 내신, 논술 고사, 면접 시험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문민 정부 이후의 시기이다. 국가 중심 관리에서 점차 대학의 자율 확대로 옮겨 가고 있다.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다. 모집 시기를 특차와 정시로 나누었고, 선택 과목이 생겼다. 무시험 전형이 도입되었고, 수능 시험과 함께 학생부 반영, 대학별 논술 시험 등의 평가 내용이 확대되고, 면접 시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입시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가? 문젯거리가 있는 입시 선발 제도만큼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학별 입시 제도를 허용하면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대학별로 선택의 여지는 넓혀 주되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결국 모든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관리하는 길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고쳐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지난 50년간 정부는 35회에 걸쳐 교육 제도를 바꾸어 왔다. 1년 반마다 제도가 바뀐 것이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획일적인 입시 관리, 적성과 자질을 무시한 입시 제도, 평준화 시비, 변별력 문제, 과외 열풍,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계속 제도가 개선되어 왔는데 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가?

입시 제도의 바탕에 깔린 생각은 무엇인가? 첫째,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정된 인력과 노력을 들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채점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들이 불평하면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다섯째, 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때 그때 바뀌 나간다.

다음과 같이 맞추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정부 중심의 입시 관리, 객관식 출제, OMR 채점, 평준화, 1년 반마다 바뀌는 입시 제도……. 어떤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가?

입시 준비는 6시그마 운동

입시생들이 준비할 대상은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선택 과목 선정, 논술 시험, 자기 소개서 작성 등 소홀히 할 것이 없다. 각종 경시 대회 참가 경력을 준비하고 사회 봉사 활동도 수준급으로 모양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면접 시험도 만만치 않다. 전공 면접,

교양 면접, 기초 소양 면접 등 종류도 많고, 대학에 따라 강조하는 내용도 다르다.

수능 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유지하려면 면접에서도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 일류 대학 진학의 성패는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결국 고득점자 사이의 변별력이다. 고득점자 그룹에서는 1점만 깎여도 큰일이다. 만점이라야 안심한다. 1점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들이 지향하는 경영 목표 중에 '6시그마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6시그마 운동은 휴대폰으로 유명한 모토롤라사에서 시작한 '무결점 운동'이다. 즉, 100만 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품 개수가 3.4개 미만인 되도록 하는 철저한 품질 관리 운동이다.

수능 시험의 변별력 평가는 기업에서 추진하는 6시그마 운동을 닮았다. 일류 대학에 가려면 수능 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거대한 조직, 막대한 예산 투입, 목표 의식이 강한 고급 인력으로 무장한 세계 일류 기업들도 도전을 망설이는 6시그마 운동을 학생 개개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에서 6시그마 운동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 잘 하자고 다짐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면 된다. 입시생이 6시그마 운동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시 경쟁에서 낙오한다. 끝장난 것이다. 살아남는 길

은 무엇인가? 없다.

변별력과 평준화의 2중주

1974년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문고의 몰락을 가져왔다. 고교 평준화의 기본 발상은 무엇인가? 명문고 출신들이 일류 대학 입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불평이 커지는 것 아닌가? 명문고를 없애면 모든 학생들에게 일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학부모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 아닌가? 없애 버리자.

그러나 '명문고'가 없어지고 나서 생겨난 후유증은 무엇인가?

첫째, 공교육의 몰락을 가져왔다.

평준화 고교의 담임 교사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너무 다양한 것이다. 수업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까? 수능 모의 시험 분포를 예로 들어 보면 평준화된 학교 학생들의 분포는 대략 1등급 378점 부근부터 9등급 172점까지일 것이다. 어떤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해야 할까?

172점~378점 사이의 중간쯤 되는 수준, 275점 부근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 수준이 너무 어려워

서 따라오지 못하고, 상위권 학생들은 지루해서 수업에 소홀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점차 학교 수업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이다.

수업 내용이 어정쩡한 것이다. 학생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학부모들이 주저 없이 공교육을 비판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에 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특수 목적고, 사립고 등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했다.

특수 목적고, 사립고 등 비평준화 고교의 교사는 선발 시험을 거친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점수 분포를 대략 나누어 상위권은 330점, 중위권은 270점, 하위권은 210점 근처의 학생들로 나누어 학급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실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므로 교사는 수업의 수준을 책정하기 쉬울 것이다. 수업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각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단계별 도전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수업 분위기, 학생 성적 관리, 학부모 상담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양 떼를 모는 두 목동 A, B가 있다. A목동은 건강 상태와 발육 상태를 가리지 않고 50마리를 기른다. 이 목동이 맡은 무리는 앞서 가는 선두 무리와 뒤에 처진 무리의 간격이 210m쯤 될 것이다.

B목동은 양의 상태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건강 상태, 발육 상태가 비슷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 중 한 그룹 내에 속한 양 50마리를 기른다. 이 목동이 다루는 양 떼의 거리 간격은 90m쯤 될 것이다.

A목동의 양치기 철학은 무엇인가? '걸음걸이 속도로 내 양을 차별하지 말라'는 양 주인들의 불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B목동의 철학은 무엇인가? '중도에 잃어버리는 양, 늑대에게 잡혀 죽는 양의 숫자를 줄여 달라'는 양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A목동은 양 주인들은 만족시켰지만 많은 수의 양을 잃을 것이다. B목동은 일부 양 주인들의 불평은 듣겠지만 희생되는 양의 숫자는 적을 것이다. 우리 교육 제도는 A목동의 철학을 따르고 있다.

셋째, '명문 지역'이 형성되었다.

1974년 실시된 고교 평준화는 전국 각 지역 명문고의 몰락과 동시에 특정 '명문 지역'의 등장을 불러 왔다. 평준화 때문에 공교육이 파괴되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다. 학생들의 실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정해 놓고 한숨 돌리다 보니 학부모들의 경제력 차이가 전면에서 등장한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에 따르면, '명문 지역' 출신 학생들은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좋은 입학률을 기록했다. 1980년 전후에 비슷한 입학률을 보이던 서울 지역과 한 명문 지역은 다섯 차례의 입시 제도 변경을 거치며 약 2배의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입시 제도가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득을 보는 것이다. 명문 지역 학원들의 순발력이 좋기 때문이다. 명문고가 못마땅해서 없었던 명문 지역, 즉 학부모의 소득과 부동산 실력이 자식의 장래를 좌우하는 가능자가 된 것이다.

넷째, '명문 학원' 이 등장했다.

고교 평준화 이후 학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 보고에 따르면 1970년에 집계된 학원의 수는 1,400개였다. 이것이 1980년에 이르러 약 2천 개, 1990년에 약 5천 개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0년에 집계된 학원의 수는 6만 개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학원의 숫자가 무려 40배 늘어난 것이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평가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학원 수가 늘고 학원비가 인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원들은 신상품을 계속 개발했고, 지금은 스타 강사 군단을 키우고 있다.

스타 강사는 성공 일화가 많다. 스타 강사의 맹활약과 명문 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 열풍에 힘입어 신종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스타 강사이다.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수요-공급이 시장의 법

칙 아닌가?

시장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생겨난 업종이 스타 강사 기획사이다. 기획사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생 실력 수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 따라 원하는 스타 강사를 족집게처럼 집어내어 집중 지도를 원하는 학부모에게 연결시켜 줄 것이다.

교통 사고와 병원, 사건 의뢰와 법률 사무소 간에 거래되는 관행으로 미루어 보면 기획사는 스타 강사한테 대략 과외비의 30%를 소개비로 받을 것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30% 더 오를 것이다. 결국 명문 지역의 사교육비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다섯째, 사교육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통계 보고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액수는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유아원부터 재수생에 이르기까지, 명문 지역의 학부모들은 월 평균 63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집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서울 외곽 신도시로 월 평균 47만원이었고, 서울 지역이 34만원, 광역시와 기타 지역은 각각 월 19만원과 월 16만원이었다.

사교육비를 낮추는 대책의 하나로 TV 과외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 방송과 학원이 과외를 놓고 경쟁하면 결국 누가 이길까? 학원은 현장 교육의 이점과 개인 지도의 장점을 더욱더 파고들어 방송과의 차별화에 힘쓸 것이다. 학원 강사는 인지도를 높

이고자 방송에 나가고, 인지도를 얻은 강사는 다시 학원가로 재
영업되어 더욱 강화된 스타 강사 군단을 결성할 것이다.

스타 군단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연예인의 인지도와 광고 출
연료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스타 군단은 특수 기
능을 더욱 추가하면서 과목별·수준별 명품 과외, 시기별·단계
별 과외 기획 등의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사
교육비의 무한 경쟁이 이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TV 교육을 통해 방송의 노하우를 터득한 학원들은 원격 TV 과
외, 양방향 TV 과외, 화상 TV 과외, 화상 면접 지도, 화상 논술
시험 등의 획기적인 신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은 머지않아
'명문 미디어 과외'의 새로운 실력자로 성장할 것이다. 학부모들
은 기를 쓰고 투자를 반복하면서, 가는 데까지 가다가, 결국 가정
경제 파탄 코스로 접어들 것이다.

태능 선수촌을 없앤다면

평준화와 변별력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평준화로 수업 수
준을 한껏 낮추어 놓고 나서, 고득점자들 간의 미세한 점수 차이
를 파악하는 것이 변별력 아닌가? 섞일 수 없는 두 개념이 충돌하

면서 평준화된 명문 지역, 차별화된 명문 학원이 연출하는 사교
육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명문 지역의 출현은 다른 지역 학부모들의 기세를 꺾어 놓는다.
급등하는 부동산 투자 경쟁을 거치지 않고는 명문 지역에 합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들에게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느
냐고 묻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고 묻는다.

명문 학원은 새로운 가치관을 정착시킨다. 명문고의 입학 시험
이 사라진 대신 명문 학원의 선발 시험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명
문 학원은 선발 요인으로 학생 실력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
다. 고소득 전문직 학부모들만이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제력이다.
이제 명문 학원 학생, 명문 지역 학부모로 구성된 새로운 '명문
계층'이 출현한 것이다.

명문 학원 단속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명문 지역
단속은 어떻게? 입시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명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주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닌가?

결국 명문 계층이 일반 학부모들의 새로운 불평 대상이 된 것
아닌가? '고소득·전문직 폐지' 정책은 어떤가? 어렵다. 헌법 개
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대책은 없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아, 있다! '대학 평준화'는 어떤가?

태능 선수촌의 선수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최우수 선수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후원 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다. 전국에 있는 경기 단체들은 태능 선수촌의 특별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성원한다.

태능 선수촌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 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빛내고 민족의 자부심을 고양시켜 줄 것이다. 태능 선수촌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온 국민에게 흥분과 감동을 전해 주던 국제 스포츠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다. 몇 개 안 되는 명문 대학 후보들마저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사라질 것이다. 수입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평준화도, 명문대 폐지도 이제는 물 건너간 사안이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명문대의 명분을 제공해 주던 기초 학문 분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던 이공계 분야가 우수한 인재들로부터 일제히 외면당하고 있다. 엇그제까지 명문대로 지목되어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아 오던 대학이 수능 3등급의 신입생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문대를 찾던 수능 1등급의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고소득 전문직 진출이 보장되어 개인적 부의 축적이 약속되는 '명문 학과'로 몰리고 있다. 이제 명문 학과를 없애 버릴 차례 아닌가? 무언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쫓아다니며 없애

버리기만 하면 잘 하는 일인가?

우수한 인재들이 명문대를 꺼리고 피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인재들이 소비적인 분야로만 몰린다면 그 동안 인재들이 감당해 오던 국가의 수입원 창출은 이제 누가 맡을 것인가?

이제라도 국가 존망의 열쇠인 국제 경쟁력을 걱정한다면 태능 선수촌 같은 역할을 맡고, 태능 선수촌 같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다수의 명문 대학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명문대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애쓰는데 왜 우리는 갈 길이 먼 명문대 후보들마저 없애려 하는가? 그렇게 평준화 정책에 자신 있다면, 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국제 회담 자리를 빌려 세계 각국의 모든 명문대를 없애고 평준화 정책을 채택하자고 정식으로 제창하지 않는가?

이 모든 교육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실마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